

지금은 양봉인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

최규칠 사무총장

국내양봉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항생제파동과 한·미FTA, 한·캐나다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연꿀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 흐름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번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잠시 중단되었던 DDA협상이 다시 재기되어 농축산업 뿐 만 아니라 양봉산업에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지닌 한·미FTA, 한·캐나다FTA 등이 급속도 진행되고 있으며 WTO-DDA협상도 다시 제기될 예정이다.

특히 한·미FTA는 미국의 일방적인 일정에 의해 진행됨으로써 협상일정이 매우 짧아 졸속협상의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강행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국내 농축산업과 우리양봉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도 같다.

지난 제주에서 제4차 협상을 마치고 곧바로 5차 협상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타나에서 진행되었고, 6차협상이 2007년도 1월 15일경에 국내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미국의 방침은 2007년도 2월까지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3월중에 미국상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제4차부터 양국의 향후 농업분야의 양허 안을 서로 제시한 상태에 있지만 미국은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를 10년내에 관세 철폐와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제4차 협상의 천연꿀 협상결과를 보면 5년 내 관세철폐 및 완전개방을 요구 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측의 협상안은 전체 농·축산물 1,530개 품목 중 243개가 주요품목이며 주요품목 중 천연꿀은 14개 초민감품목(보호품목)으로 분류되어 천연꿀은 절대로 개방할 수 없다는 정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결국 협상이란 주고 받는 과정에서 비중이 적은 품목부터 미국 측의 요구안대로 이루어 질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고, 마무리 단계인 6차 협상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라가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7차 협상까지 국내 벌꿀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 초기부터 천연꿀을 개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우리양봉산업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타 나라보다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벌꿀 가격은 중국보다3~4배가 높고, 베트남보다는 5~6배가 높다는 점에서 우리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벌꿀 소비량은 연간 약15만 톤을 소비하고 있으나 소비량 중 자국내 생산량은 30%내이며, 나머지 70%는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국가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천연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이 우리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국

내의 높은 가격과 벌꿀을 이용한 조제품(완제품/가공품)을 수출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미FTA에 체결에 따른 우리 농업분야에 미칠 파급영향은 수조원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 연구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축산업과 양봉산업을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추정이다. 다른 품목에 비해 우리 양봉산업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관계로 피해는 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최근 협회를 중심으로 양봉조합에서도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론매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벌꿀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소비자 인식변화와 벌꿀 소비촉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홍보는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생산하는 벌꿀은 우리 양봉인 스스로가 홍보하겠다는 마음가지이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시·도지회별 또는 시·군·구 분회별)으로 생산농가와 유통판매업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 상생을 위한 마음을 가질 때 가능 할 것이며, 자조금사업 등 지속적인 홍보 전략을 펴 나간다면 수입개방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적정 가격유지와 친환경농법을 실천하여 국제경쟁력에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벌꿀의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70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벌꿀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고 보나 최근 몇 년간의 가격을 볼 때 국제경력에 맞지 않는 가격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유지한 우리 벌꿀시장을 타 국가들이 모를 리가 없

고, 타 국가들은 국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높은 가격으로 수입(무역)업자들은 높은 관세(243%)를 주고도 외국에서 국내시장에 반입(2005년도 벌꿀 수입량 1,163톤)하려고 한다.

이는 곧 국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입꿀과 밀수품이 들어와 벌꿀이 정체되어 그 피해가 생산농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현실에서 우리생산농가들은 생산비를 절감하여 외국의 벌꿀가격과 동등한 가격대를 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수입꿀과 밀수품을 근절하는 방안이며,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법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벌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는 안전한 벌꿀이 아니면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것이며, 수입 꿀에 밀리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사양기법을 친환경사양기법으로 전환하는 시대적 명제이기에 하루 빨리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전환하여 다시는 제2의 항생제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양봉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꼭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친환경사양기법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양봉산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행히 국내 소비자들은 “우리의 것 신토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잘 활용하는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펴 나가야 한다.

질 좋은 벌꿀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국산 벌꿀의 우수성과 기능성, 웰빙 식품 등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외국벌꿀보다 2배정도 높은 가격대만 유지 한다면 수입개방이 되어도 소비자들은 우리의

별꼴을 애용할 것이며 경쟁력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양봉산업은 한·미FTA와 전 세계가 자유로이 수출입을 할 수 있는 험난한 시대적 과업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양봉인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화합과 단결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정부를 상대로 큰 힘을 발휘하고, 그 힘이 우리 양봉인들의 권익보호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시·도지회와 시·군·구 분회별로 똘똘 뭉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경쟁력 있는 양

봉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경쟁력육성을 위해 생산농가들은 생산원가 절감과 대량생산체제, 품질향상, 브랜드화 등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펴 나가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점등을 우리 양봉인 스스로 인식하고 시대변화에 빨리 적응하여 당당히 수입 꼴과 맞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다 함께 잘 사는 양봉산업을 만들어 나갑시다.

● 천연꿀 국가별 수출입 현황(2005, 2006)

2006. 9. 19일기준

순위	국가명	2005		2006(1월~8월)	
		금액(천불)	중량(톤)	금액(천불)	중량(톤)
	총계	2,143	1,163	395	292
1	중국	666	686	201	218
2	미국	691	197	82	33
3	스위스	55	4	33	3
4	베트남	163	153	27	33
5	프랑스	26	1	15	0.7
6	호주	36	3	8	0.8
7	독일	4	0.4	6	0.5
8	네덜란드	-	-	5	0.7
9	오스트리아	10	1	5	0.5

● 천연꿀 년도별 수출입 현황

2006. 9. 19일기준

년도	금액(천불)	중량(톤)	년도	금액(천불)	중량(톤)
1977	3	-	1992	166	42
1978	12	-	1993	232	45
1979	14	-	1994	163	40
1980	13	-	1995	581	251
1981	22	-	1996	652	262
1982	46	-	1997	832	296
1983	60	-	1998	945	401
1984	54	-	1999	919	427
1985	22	-	2000	587	275
1986	34	-	2001	1,030	421
1987	110	-	2002	721	438
1988	101	23	2003	1,212	656
1989	32	10	2004	1,863	1,126
1990	107	25	2005	2,143	1,163
1991	139	31	2006	395	292